

지역 소식통

정읍시,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멘토링 운영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을 시작하는 신규농업인(귀농연수생)에게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풍부한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가와 귀농연수생을 1대1로 매칭해 영농기술, 품질관리, 경영기법 등 선도농가의 경험과 노하우,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멘토링 교육과정이다.

이 교육은 지난 2월에 5개팀(선도농가+귀농연수생)을 선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고 있다. 선도농가에게는 월 최대 40만원, 귀농연수생에게는 월 최대 80만원의 교육훈련비가 지급된다.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한 귀농연수생은 “농사의 모든 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며 농사에 필요한 세심한 조언을 얻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부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20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기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 노력 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와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군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인센티브로 교부받았으며, 행안부 주관 평가에서도 인센티브 5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군은 그동안 주기적으로 전체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부진 사업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위해 사업별 이월·불용을 예측하고 세출 구조화를 통한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부안=김석진 기자

“국민 삶 변화 체감토록 할 것”

심덕섭 고창군수, “ESG기업유치·민간투자 촉진해 비약적인 발전 이룰 것”

심덕섭 고창군수는 1일 오전 취임 2주년 ‘직원소통의날’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씨를 뿌리고 싹을 피웠던 많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어 군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선 8기 고창군에서는 지난 2년간 도시의 미래를 바꿀 전략사업들을 실행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최초 삼삼전자 스마트트러브단지 유치를 비롯해 하반기 착공이 예정된 고창(호남권) 드론융합지원센터, 테마널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고창중업테마파크조성사업(용평리조트), 농촌협약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군민 소득향상과 생활여건 개선에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캄보디아, 베트남 등 전체 계절근로자 입국인원은 무려 1500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입국한 전체 계절근로자 600명의 2배를 뛰어넘으면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는 천군만마로 환영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신면에 연면적 960.4㎡ 규모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도 최초로 문을 열었다.

앞서 고창군은 군정 직무수행 평가 조사(4월22~5월2일, 원지코리언설팀, 군민 500명 대상, 98%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에선) 군민 4명 중 3명이 심덕섭 고창군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긍정 이유로는 ‘원활한 소통문화’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는 심 군수의 주말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과 각종·면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업홍보와 설명회가 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 군수는 “반기 하반기에는 친환경 ESG기업 유치와 민간투자를 촉진해 고창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브랜드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창형 소득향상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력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선 8기 하반기는 ‘도시 경쟁

력 강화’가 본격화 된다.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해 ‘테마널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사업’, ‘고창(호남권)드론융합지원센터’, ‘혁신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총괄하며 도시공민, 주거복지, 교통 등을 종합해서 다루게 된다.

임시조직으로는 농촌활력과에 김치산업육성 TF팀을 신설하여 ‘사시사철 김치원료 산업의 메카 도약’을 목표로 김치원료 가공산업을 육성한다. 또한 농기센터에는 청년스마트팜 TF팀을 신설, 청년농 임대형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임주 청년농의 사후관리·스마트 시설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까지 담당하게 된다. /고창=김영석 기자

부안군의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 박병래 · 부의장 이강세 · 상임위원장 김두례 · 김원진 · 박태수

부안군의의회는 7월 1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352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열고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했다.

먼저 실시된 후



박병래 의장

위원장에 김원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장에 박태수 의원을 선출하며 하반기 원구성을 마쳤다.

새로 구성된 제9대 부안군의의회 하반기 의장단은 7월 1일부터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해 2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박병래 의장 당선인은 ‘박종한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으로 건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집행부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2024년 상반기 매출액 상승

부안군은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의 2024년 상반기 매출액이 지난해 동기 실적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1년 6월에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과 2022년 11월에 개장한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개장 이래 꾸준하게 매출액이 상승하면서 올 상반기 전체 매출액은 22억원을 기록, 지난해 동기 실적 16억원 대비 30% 이상의 매출성장을 보였다.

특히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품질 좋은 농산물 육성을 위한 생산 농가의 많은 노력에 힘입어 로컬푸드 직매장의 광활한 만한 실적이 매출 성장에 견인됐다.

이는 부안 군민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의해 상반기에만 총 8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벌써 지난해 총 방문객의 61%를 기록했다.

이에 부안군은 24년 총매출 50억원

을 목표로 하여 하반기 월별 특판 행사와 철저한 준비와 부안군 로컬푸드 자부인증제 실시 등 식품 안전성과 상품성 향상을 로컬푸드민의 장점을 더욱더 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산 농가의 다양한 판로 개척과 소비자들의 쾌적한 먹거리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에 건립예정인 푸드엔레포츠타운과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이 계획된 일정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건립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권익원 부안군수는 “지난 6월 지진 발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군민위로 특판행사 등을 통해 로컬푸드가 생산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와 지역경제 활력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선순환 먹거리 체계 완성이 지역소멸을 막는 하나의 든든한 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갯벌축제 성료... 3일간 3만여명 고창갯벌 찾아

고창군 심원면 만들갯벌체험장

고창군 심원면 만들갯벌체험장에서 열린 2024 고창갯벌축제가 지난달 3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축제 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사흘간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총 3만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았다.

이번 축제에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주를 이뤘다. 갯벌에서 동족을 깨는 갯벌체험을 비롯해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인 풍천장어 시식과 판매부스에 도전 놀이 이어졌다.

또 남녀노소 모두 맨손으로 즐기는 마름말 풍천장어잡기, 무더위를 한 방에 식혀 줄 물총싸움으로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해안치유 프로그램, 아름다운 고창갯벌



을 거닐며 건강도 챙기는 고창갯벌길 건강걷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특히 만들 부녀회가 운영한 먹거리 코너에서는 착한가격에 새우튀김, 바지락 칼국수, 해물과전, 꼬막비빔밥 등

을 선보여 호평을 얻었다.

축제위원회는 지난해와 비교해 1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행사장 곳곳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도 만들었다.

/고창=김영석 기자

정읍시, 들개와의 전쟁 선포... 시민 안전 확보 총력

정읍시가 야생 들개로부터 가축·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포화에 나선다.

시는 7월부터 두 달간 야생 들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야생 들개의 주 서식지, 개체 수 등을 파악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화된 들개를 집중적으로 포획할 예정이다.

야생화된 들개는 공격성이 강하고 경계심이 많으며 이동이 잦아 포획이 쉽지 않다. 특히 관계법령상 유해 야생 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적극적인 포획 등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

야생 들개 전문 포획팀은 유기·유실동물 전문 구조·포획팀(2인 1조)으로 구성돼 포획틀과 포획망, 포획 울무 등을 사용해 안전하게 생포한 후 시 동물보호소로 인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야생 들개 피해에 따른 신고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 축산과 동물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야생과 주택가에 야생화된 들개가 자주 출몰하며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야생 들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